



달 밤

나무 아래서 손 벌리면 별이 몇 점 열린다
그 별들이 덜컹거리며 으스스하기도 하고
나부끼다가 쏟아지기도 한다
별자리보다 먼 서쪽 하늘에 대고
입 벌리고 서 있으면
가지 사이로 별들이 뉘엿뉘엿 물들고
내 몸에 떨어져 뒹굴던 해거름의 잎사귀들
발등에 피어오르던 풀꽃 그림자들
어린 날 뺨고 비리던 달새 울음도
황망히 들려온다, 그런 깡마른 봄밤에
말랑말랑한 못별 한 점 꺾어다가
가지 끝에 걸어둔다
달밤이 동실 떠오르는 봄밤
달동네 사람들은 달을 어디에 걸어두고 살아갈까
나는 배고픈 새들의 길을 하늘 꼭대기까지
완하게 걸어둔다
그러다 동지에서 슬그머니 잠든다

- 나정호

나정호

등단 1999년 <월간문학> 당선

작품집 시집 '불안한 꿈', '달콤한 흔적' 외, 희곡 공연작품 '첼로', '밤길' 외 다수

수상 신라문학대상, 해양문학상